



둔황에서 투루판 (기차에서 12시간)

점심 먹고 찾아간 둔황박물관은 이름값을 못한다고 할까? 박물관을 좋아하진 않지만 미라가 몇 개 있다는 것 빼고는 그저 그랬다. 화장실도 박물관급이다.



박물관 건너에 있는 사주(沙州)시장으로 갔다(사진). 호텔에서 내려다 본 사주시장은 다 쓸어져가는 시장 같았으나 막상 안을 들어가 보니 대단한 시장이다. 15만 정도의 인구를 먹여 살리는 유일한 시장이니 그럴 듯하게 보였다. 게다가 관광객도 많은 도시이다. 아직은 뜨거운 열기 때문에



모두 문을 연 것도 아닌데도, 시장 안은 마구 살아 움직이고 있다. 시장 입구의 육교에 올라서니 멀리 명사산까지 한 눈에 들어온다(사진). 우리의 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건물 안에 가게를 차린 사람도 있고, 통로에 포장마차와 모양과 크기가 비슷



한 것을 마련하고 장사하는 사람, 우리의 식료품 시장과 비슷하게 하는 이들 다양하다. 역시 눈에 띄는 것은 건조지역답게 견과류가 많이 눈에 띈다(사진). 그와 더불어 역시 사막답게 거기서 주워온 기암괴석 가게가 많다(사진). 그리고 나면 우리의 시장 풍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다(사진). 장사하는 방법이 우리와 조금 다르다고 할까?



한 돌 가게가 떠오른다. 한 소녀가 열심히 돌에 붓질을 하고 있다. 우리에게 전혀 관심도 없이. 잠깐 돌에 관심을 보였더니 즉시 누굴 불러낸다. 아마 주인인 모양이다. 그 소녀와의 관계가 모호하다. 끌려온 종인지? 아무튼, 흥정을 하였다. 하나에 600원을 달란다. 그래서 100원에 달랬더니, 그렇겐 안되고 300원에 가져가란다. 그래서 돌아섰더니 바로 150원, 그래도 돌아서니 다시 120원. 그냥 됐다고 나섰더니 이제 100원. 그냥 발길을





들렀더니 쫓아 나오면서 100원에 두 개를 준단다(사진). 이거 뭘 믿고 사야할지. 그간 산 것은 별 없지만 모두 사기 당한 것 같다. 필자도 거기서 돌 두 개를 샀는데. 중국서 물건 살 때 신경 좀 써야 할 것 같다.

시장은 한 바퀴 돌고 나니 지쳤다. 통로 곳곳에 쉼터가 마련되어 있다. 그래야 할 것 같다. 그러지 않고선 모두 더위 먹을 것 같다. 중국에선 처음으로 살구 맛 나는 냉음료를 마셨다. 과연 꿀맛이었다. 필자는 하나 반을 마셨다. 그리고 나니 저녁 시간이다. 저녁 후 부지런히 역으로 달렸다. 이제 정든 기사와도 우리의 최씨 가이드와도 헤어질 시간이다. 최광철씨는 눈물이 글썽이려 하였다. 역시 아마추어 같단 생각이 스쳤다.

역은 거의 난장판이다. 비포장이라 먼지가 날리고 깊은 계단을 지나 내려가고 올라가고를 몇 번하니 우리가 탈 기차가 쏸다. 가는 길에 하나관광을 이용한 한국 아줌마들도 많았다. 그 중 일부는 우리 옆방이



였다. 그중 한 아줌마는 엄청 해외여행을 많이 한 듯 자랑하였다. 듣자 하니 잘못된 이야기도 많았지만 그냥 눈감아 주었다. 나에게 하는 이야기도 아니니. 그쪽 가이드 여자는 나를 모독하기도 하였다. 일몰을 찍고 있는데 찍어도 안 나온다고 아줌마들에게 이야길 하다니. 내가 아주 웃겨서 왜 안 나오냐고, 내 카메라는 다 나오니 걱정 말라고 해주었다.



이야기가 좀 빛나갔다. 역은 새로 생긴 것이라 시원하였다(사진). 참 웃기게 보이기도 하였는데, 둔황역은 여기서 128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한다. 그러니깐 란저우에서 우루무치로 가



는 선로에서 둔황으로 꺾이는 곳에 둔황역을 만든 것이다. 지금의 유원역이 바로 그곳이다. 유원역이 이제야 자기 이름을 찾은 것이다. 그런데 둔황역도 시내에서는 꽤나 멀리 떨어져 있다. 나중에 보니 투루판역이 시내에서 60여km나 떨어져 있다. 중국은 대충 그러는 모양이다.

한쪽에선 해가 지평선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잠시 반대쪽을 보니 달이 중천에 솟고 있다 (사진). 시간을 보니 9시 정도이다. 북경은 우리보다 1시간이 늦다. 문제는 신장에서도 북경과 같은 시간을 사용한다. 하지만, 실제로 시간을 북경보다 두 시간 정도 늦다. 그래서 관공서도 늦게 문을 열고 늦게 닫는다 한다. 이제 12시간을 달려야 투루판이다.

긴 밤이었다. 잠에서 깨었을 때는 투루판에 거의 접근하고 있을 무렵이다. 주변은 여전히



황무지에 막히고 간간히 광산의 흔적만 보일 뿐이다. 둔황역도 왠지 낯설었지만 투루판역은 역시 관광지다 왔다(사진). 마치 공항에 내렸을 때 마중 나오듯 피켓을 든 여인들이 많다. 인파가 많은 것 빼고는 그냥 역이다(사진). 드디어 우리의 마지막 기



사를 만났다. 기사로
선 4번째이다.

역에서 투루판 시
내까지는 계속 내리
막이다. 투루판에서
가장 낮은 곳은 해발
-154m라고 한다. 세
계에서 두 번째로 낮
은 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가보지 못하
였다. 가이드가 못가
는 곳이라니 할 수
없이. 투루판은 중국
에서 가장 더운 곳이



다. 관측으로는 49.6℃까지 기록되었다 한다. 최난월이 7
월인 점이 주목할 만하며, 그 달 평균기온이 45℃를 넘는
다. 건조하고 기온이 높아서 일찍이 포도농사가 발달하였
다. 건포도가 지중해에서 먼저 온 것인지 이곳에서 시작
되었는지 알 수 없다. 도시 전체가 건포도 제조공장이라
할 정도로 곳곳에 포도 건조장이 깔려 있다(사진). 그만큼
투루판은 포도로 유명한 곳이다. 8월 즈음에 들른다면 실컷
포도를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아침을 위하여 들른 식당은 투루판 호텔 식당이다. 한마
디로 뭐가 뭔지 분간이 안 되는 식당이었다. 우선 양식도
아니고 중식도 아니다. 뷔페인지 아닌지도 구분이 안 된
다. 아무튼 어디선가 몰려온 관광객이 많다. 그 중에는 한
국인도 많았다. 아침 후에 첫 행선지는 교하고성이다. 기
대가 크다.

